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1년 9월 생산은 전월대비 1.3% 증가(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공공행정,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3%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1.4%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 식료품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전기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9%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9%).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줄었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3.3%).

◆ 2021년 9월 소비는 전월대비 2.5%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0%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7%) 판매가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3.8%), 의복 등 준내구재(5.1%)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2.5% 증가함(전년동월대비 +3.7%).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2.7%) 및 전기기기 및 장치 등 기계류(-0.5%)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1.0% 감소함(전년동월대비 -4.5%).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3.5%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6.9%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9월	8월p	9월p
생산	전산업	1.5	1.0	-1.2	-0.6	1.1	1.0	0.6	-1.8	-3.0	2.8	1.6	1.1	-0.2(5.9)	1.3(1.4)
	광공업	1.4	0.4	-0.4	-1.9	1.9	1.8	0.7	-0.6	-6.5	6.0	2.9	3.1	-0.7(9.7)	-0.8(-1.8)
	제조업	1.3	0.5	-0.3	-2.1	2.1	1.8	0.9	-0.6	-6.9	6.4	3.1	3.5	-0.4(10.2)	-0.9(-1.9)
	건설업	-4.2	-2.3	-4.1	2.6	0.2	-2.2	1.0	-0.7	-2.9	-2.8	2.5	4.5	1.4(-0.1)	3.5(-8.4)
	서비스업	2.3	1.4	-2.0	0.3	0.5	0.7	0.4	-2.9	-1.3	2.0	0.9	0.0	-0.8(4.2)	1.3(3.3)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5	0.2	-0.1	2.0	-5.7	5.9	-1.1	0.9	1.1	-0.8(3.8)	2.5(3.7)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3.4	2.1	2.0	3.4	-1.0	2.7	2.2	0.8	6.3	-4.6(12.4)	-1.0(-4.5)
물가		1.5	0.4	0.5	-0.4	0.4	-0.1	0.3	0.5	-0.8	0.6	0.1	-0.6	0.5(2.5)	0.1(3.2)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10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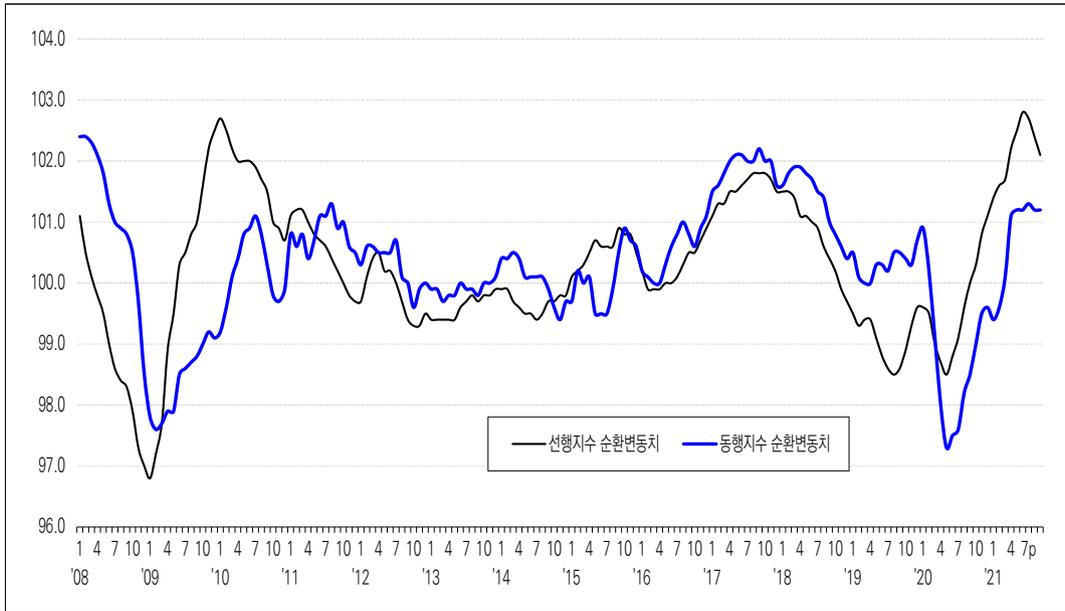
○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100)로 전월대비 0.1% 상승함(전년동월대비 3.2%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1.4%), 주택·수도·전기·연료(0.6%), 숙박 및 음식점업(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0.8%), 의류·신발(0.3%), 오락·문화(0.2%), 기타 상품·서비스(0.1%)는 상승, 교육, 주류·담배는 변동 없으며, 보건(-0.1%), 통신(-0.4%), 식료품·비주류음료(-1.6%)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8% 하락,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함.

◆ 2021년 9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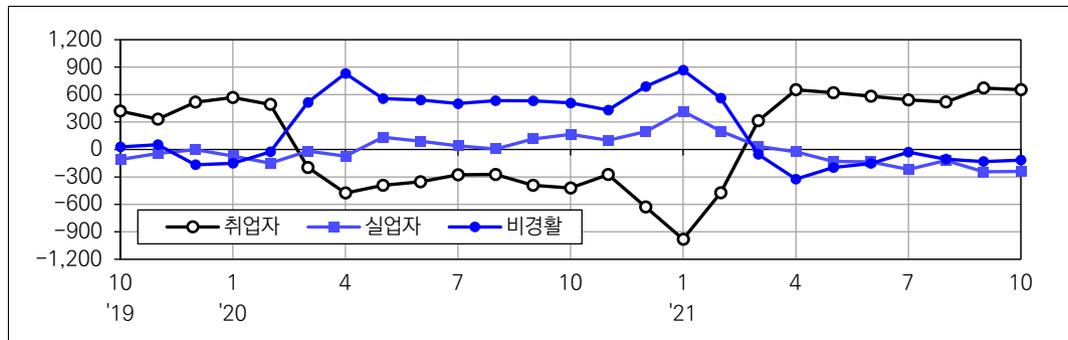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소폭 축소, 전월대비는 소폭 증가

○ 2021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5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전월대비¹⁾ 5만 8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10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 축소가 이어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도 증가세가 지속됨. 건설 및 대면서비스는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정보통신은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사업관리지원은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10월은 20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30대는 감소폭이 확대됨. 40~50대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확대됨. 20대는 도소매 및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60세 이상은 농림어업 및 건설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종사상 지위별) 10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의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추세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 (일시휴직자) 10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 2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9월 -39만 5천 명)됨. 전월대비는 3만 1천 명 증가함.
- (실업자) 10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4만 1천 명 감소하여 9월(-24만 4천 명) 수준을 유지함. 반면 전월대비 실업자는 20~40대를 중심으로 5만 1천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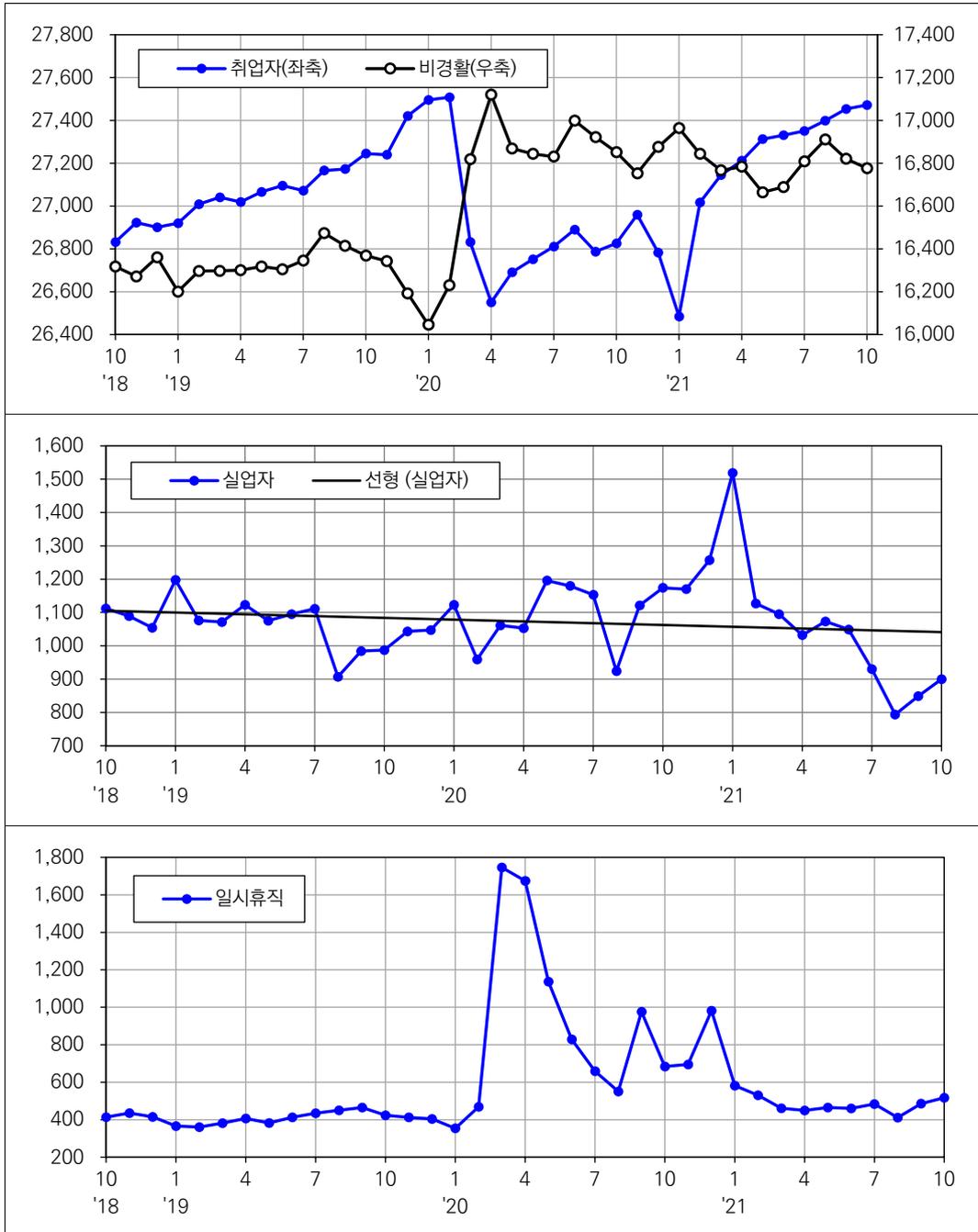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에서 증가폭이 축소, 6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20대 취업자는 제조업 및 정보통신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반면 도소매, 운수창고, 협회단체 등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실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됨.
 - 60세 이상 취업자는 주로 농림어업, 건설, 운수창고, 숙박음식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반면 공공서비스에서는 둔화하여 공공행정은 감소폭 확대, 보건복지는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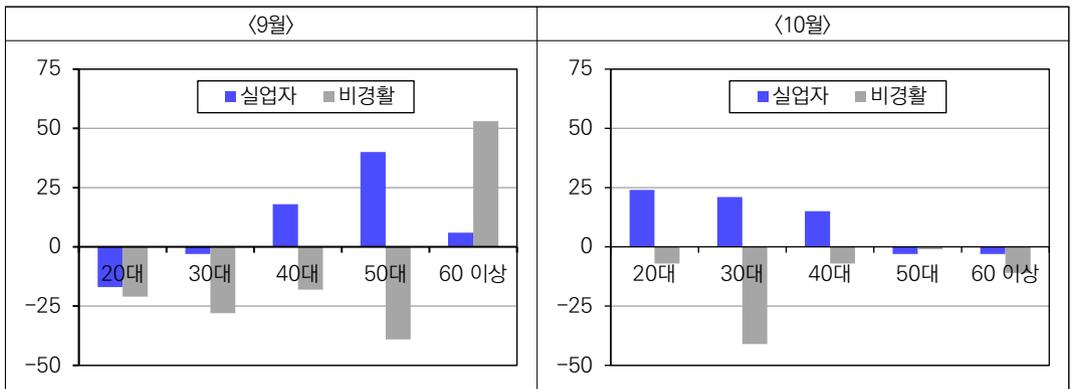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취업자	6	16	12	(-12)	137	202	168	(-28)	-88	-12	-24	(12)
실업자	-4	-4	-2	(-5)	-70	-137	-105	(24)	-6	-61	-59	(21)
비경황	-139	-141	-130	(12)	-74	-82	-90	(-7)	-49	-66	-52	(-41)
실업률	-2.1	-2.6	-1.8	(-1.8)	-1.9	-3.6	-2.7	(0.6)	-0.1	-1.1	-1.0	(0.3)
고용률	0.6	1.1	0.8	(-0.5)	2.2	3.3	2.8	(-0.3)	0.3	1.3	1.1	(0.3)
	40대				50대				60세 이상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취업자	11	18	20	(-12)	76	124	124	(9)	377	323	352	(60)
실업자	-22	-35	-36	(15)	-21	-9	-29	(-3)	1	2	-10	(-3)
비경황	-62	-52	-52	(-7)	-59	-112	-85	(-1)	276	320	293	(-11)
실업률	-0.3	-0.5	-0.5	(0.2)	-0.3	-0.2	-0.5	(0.0)	-0.1	-0.1	-0.4	(0.0)
고용률	0.9	0.8	0.9	(-0.1)	0.9	1.4	1.4	(0.0)	0.7	0.3	0.6	(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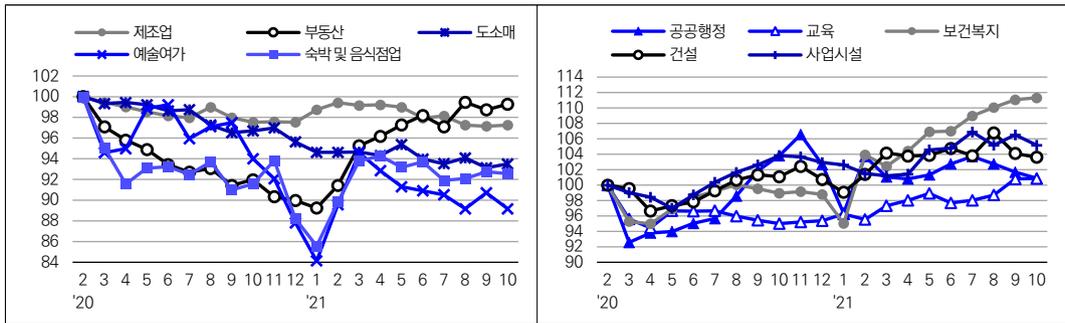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예술여가, 공공행정, 건설, 사업시설이 감소함. 제조업, 숙박음식, 교육, 보건복지는 정체된 반면 도소매 및 부동산은 전월보다 소폭 개선됨.
-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 사업시설, 교육은 작년 2월 수준 이상을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37	22	20	7	-9	18	16	1.1
광업	1	-1	0	2	-2	0	0	0.0
제조업	-76	-37	-13	-39	-5	5	-39	-0.9
전기·가스·증기	-3	-3	2	4	4	2	10	14.9
수도·원료재생	18	20	13	-2	2	-5	-5	-2.9
건설업	123	57	52	60	-54	-10	-4	-0.2
도매 및 소매업	-113	-122	-113	20	-34	13	-1	0.0
운수 및 창고업	107	163	163	-15	34	13	32	2.0
숙박 및 음식점업	-38	39	22	4	15	-4	15	0.7
정보통신업	75	97	103	20	13	-1	32	3.6
금융 및 보험업	22	5	15	-13	-8	4	-17	-2.1
부동산업	35	41	39	13	-4	3	12	2.3
전문·과학·기술	55	59	64	-2	12	9	19	1.6
사업시설관리지원	48	52	19	-23	18	-18	-23	-1.6
공공행정·사회보장	47	-1	-33	-11	-12	-9	-32	-2.7
교육서비스업	51	98	108	13	39	1	53	2.9
보건 및 사회복지	243	280	300	26	24	6	56	2.2
예술·스포츠·여가	-43	-34	-26	-7	8	-8	-7	-1.5
협회·단체·수리·기타	-41	-41	-57	-1	-12	-16	-29	-2.5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24	-21	-22	3	2	-3	2	2.5
국제 및 외국기관	-6	-3	-3	0	2	-2	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10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에서 증가폭이 확대, 임시직은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로 전환하고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반면 사업관리지원은 감소로 전환함.
 - 임시직은 도소매 및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감소폭 확대 및 증가폭의 축소가 나타남.
 - 일용직은 건설업 감소폭이 축소됨. 제조업, 숙박음식 및 협회단체는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주로 농림어업 및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324	515	615	-5	72	91	158	1.1
임시직	312	340	219	16	41	-88	-31	-0.7
일용직	-89	-121	-162	68	-54	-40	-25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1	-48	-26	21	-17	24	28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6	22	45	-31	-4	25	-10	-0.2
무급가족종사자	-23	-37	-37	-12	-15	10	-18	-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농림어업	-6	-8	-10	-2	-3	-5	12	6	5	-11	1	-5	36	37	46
제조업	-44	-9	18	-17	-12	-14	-5	1	-16	-15	-19	-9	-4	-2	1
건설업	83	103	88	-15	-8	-8	12	-61	-46	0	-3	0	38	20	15
도소매	-48	-32	-5	4	-1	-14	-26	-25	-33	-21	-26	-21	7	-9	-15
운수창고	52	74	74	22	38	23	2	11	11	0	-2	-2	31	39	54
숙박음식	-28	-23	-32	33	65	50	-58	-32	-44	-5	1	7	25	30	37
정보통신	70	87	94	16	23	26	2	3	1	-2	-1	1	-11	-15	-18
금융보험	-6	-17	-1	33	29	23	-2	-4	-3	-1	-1	-2	-1	-1	-2
부동산	26	28	25	14	16	15	-3	1	3	-14	-6	-5	13	3	1
전문과학기술	62	82	98	13	-6	-17	-2	-3	-4	-3	-5	0	-10	-6	-9
사업관리지원	4	18	-13	28	17	25	6	3	3	6	6	4	3	6	-3
공공행정	82	62	68	-35	-63	-96	0	0	-6	-	-	-	-	-	-
교육서비스	2	16	36	69	98	67	1	3	2	3	1	0	-31	-26	-2
보건복지	75	115	151	171	164	148	-3	-1	-4	9	9	10	-6	-3	-2
예술스포츠	4	4	10	3	4	-5	-18	-13	-8	-11	-7	-3	-14	-16	-13
협회단체	-13	8	5	0	-2	18	-13	-17	-26	4	3	-1	-17	-29	-47
가구 내 고용	0	0	2	-20	-18	-21	0	2	-1	0	0	-1	-4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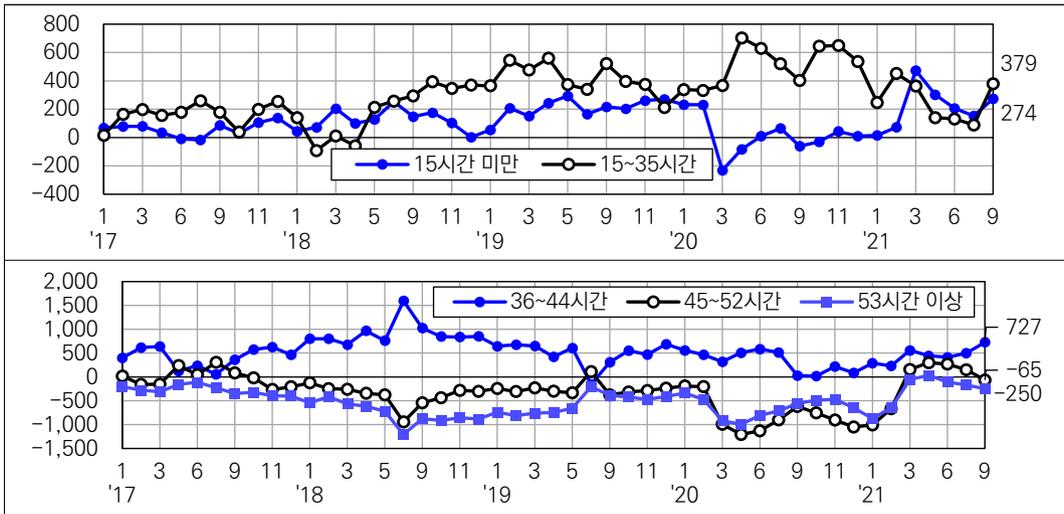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10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7.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4시간 감소함.

－ 10월의 평균 총근로시간 감소는 조사대상주간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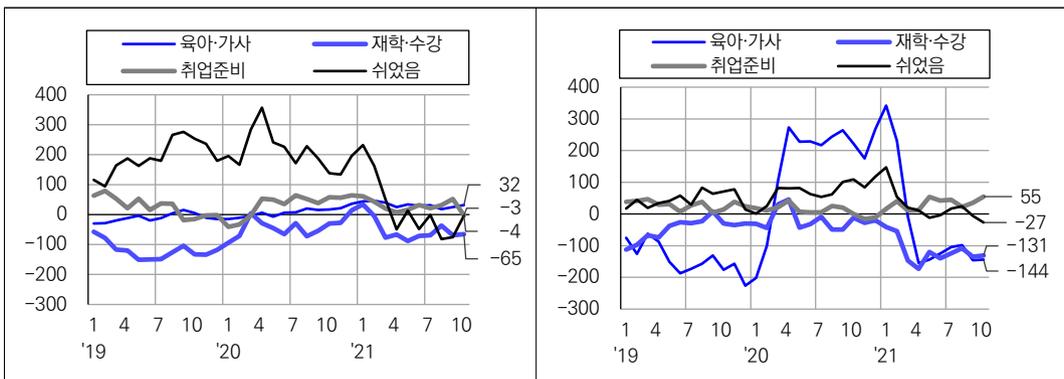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0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만 6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9월 -13.2만 명)됨.

－ 남성은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취업준비는 감소 전환된 반면 여성은 쉬었음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취업준비의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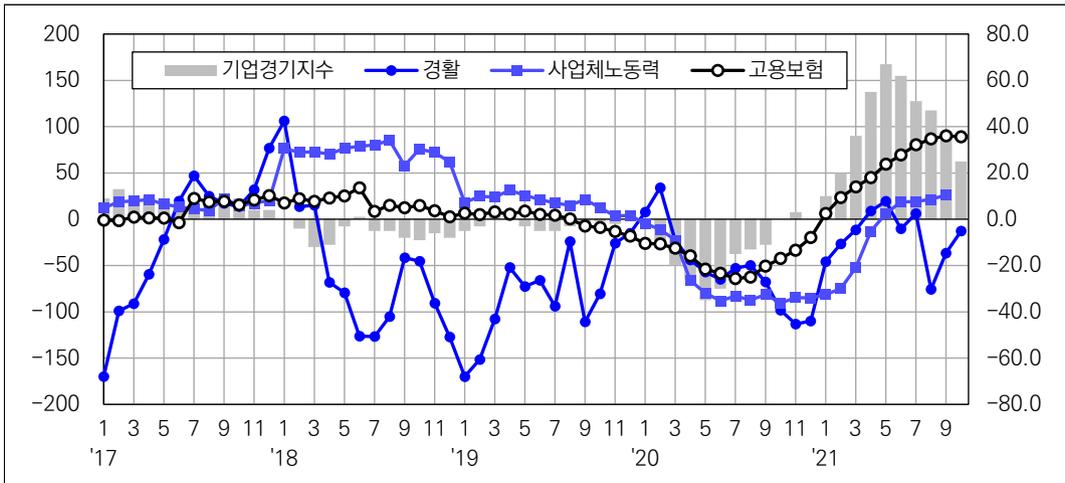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 202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1만 3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세가 지속됨. 피보험자는 전기장비 및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전자통신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5천 명 증가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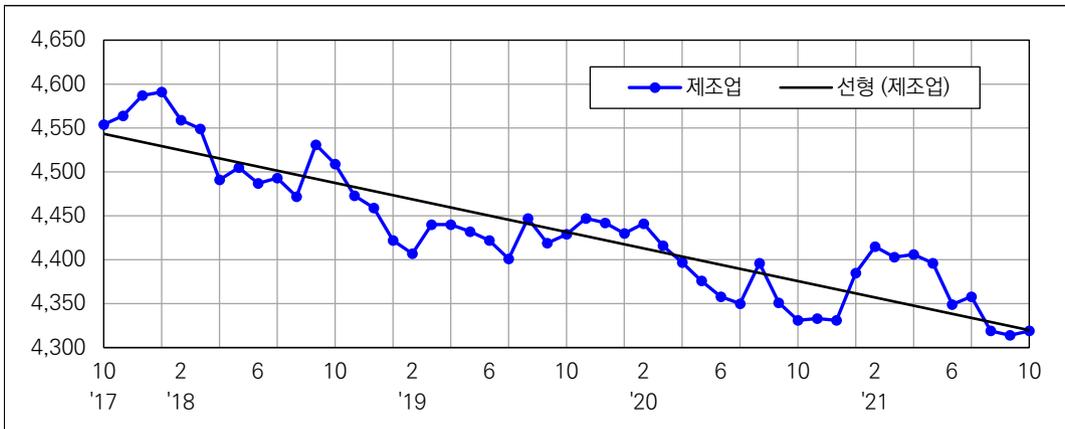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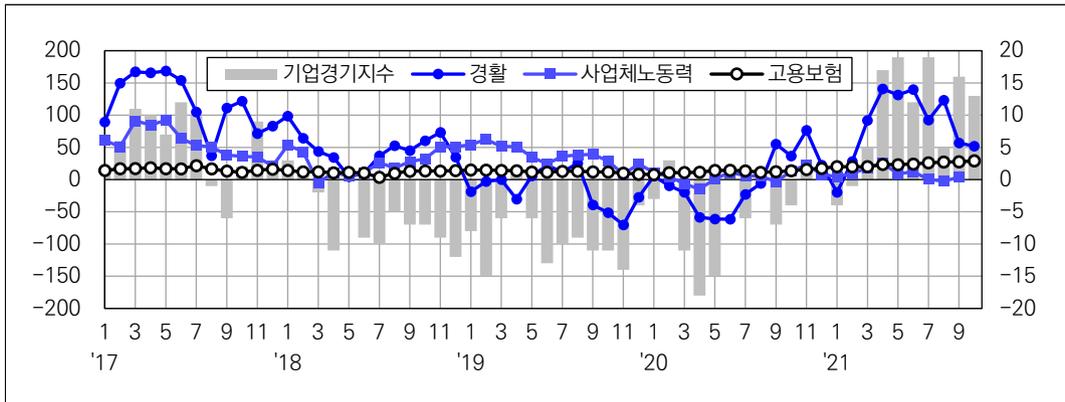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10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큰 변동 없이 증가세를 유지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 전환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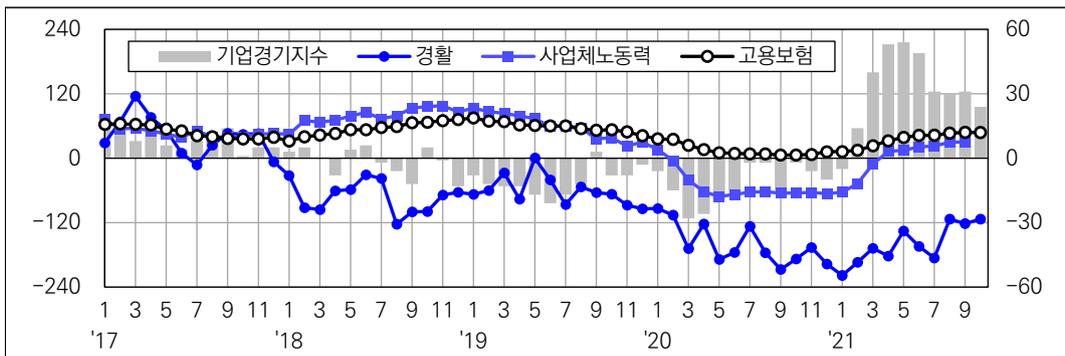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10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59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도소매) 취업자는 상용직에서 감소폭이 축소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됨.
 - (숙박음식) 취업자는 20~30대에서 감소 전환하고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성별로는 남성에서 증가 전환하고 2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사업관리지원) 경찰 취업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폭이 축소됨. 취업자는 상용직이 감소 전환하고 단순노무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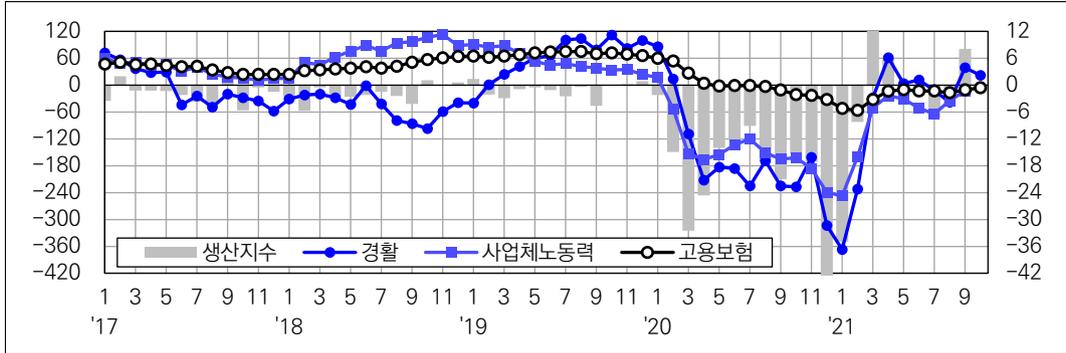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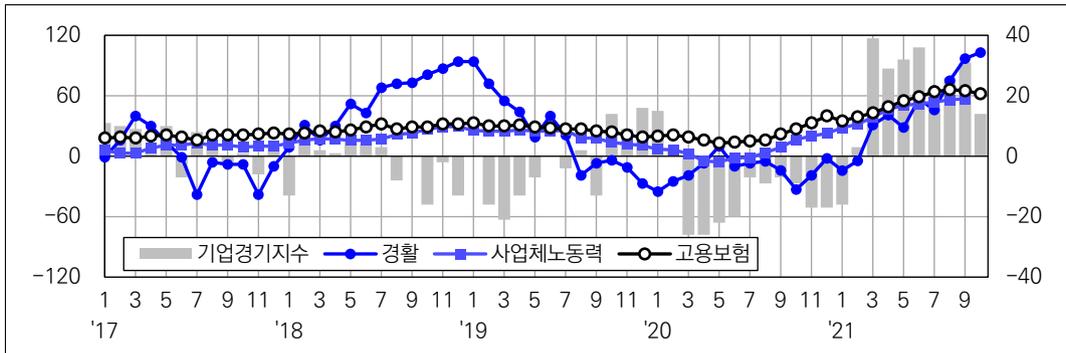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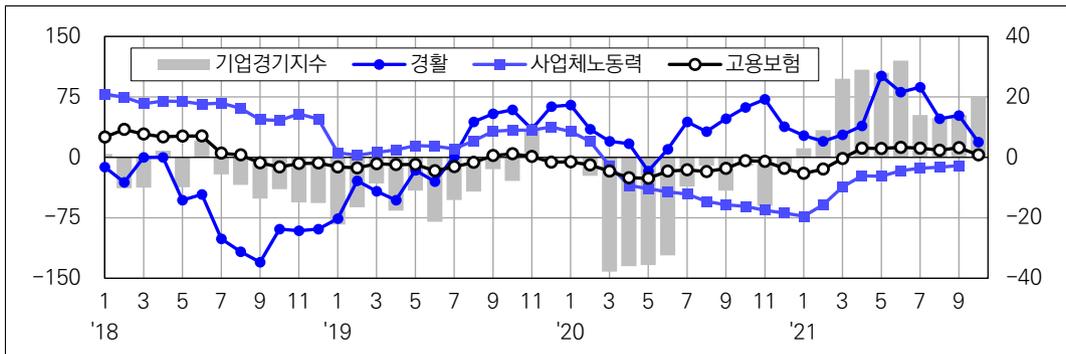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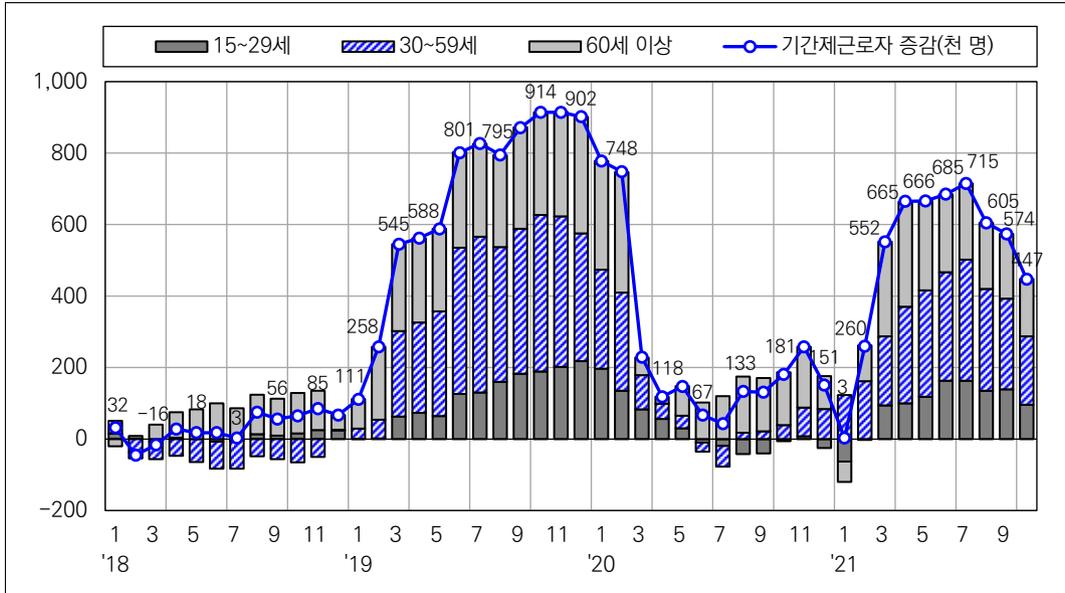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10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4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의 축소가 이어짐. 기간제는 주로 30세 미만과 30~59세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1년 8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 2021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2만 1천 원(4.2% 증가)임.

- 2021년 8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71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67만 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확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정액급여 둔화,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가 감소한 기저효과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특별급여가 증가한 데 기인함.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축소는, 전년동월에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1년 8월의 건설업 임금상승폭 축소와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함.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근로자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8월	8월	1~8월	8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527 (1.1)	3,485 (0.6)	3,379 (0.1)	3,639 (4.4)	3,521 (4.2)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3,719 (0.4)	3,668 (-0.2)	3,557 (-0.5)	3,836 (4.6)	3,713 (4.4)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3,077 (2.2)	3,063 (2.1)	3,056 (2.2)	3,161 (3.2)	3,160 (3.4)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200 (-0.9)	195 (-2.8)	198 (-0.5)	204 (4.7)	207 (4.1)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441 (-9.9)	410 (-13.2)	303 (-21.2)	471 (14.8)	346 (14.0)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636 (7.8)	1,621 (7.9)	1,626 (6.7)	1,689 (4.2)	1,678 (3.2)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5.7 (0.5)	105.5 (0.5)	105.5 (0.7)	108.3 (2.0)	108.3 (2.6)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0.1	-3.1	2.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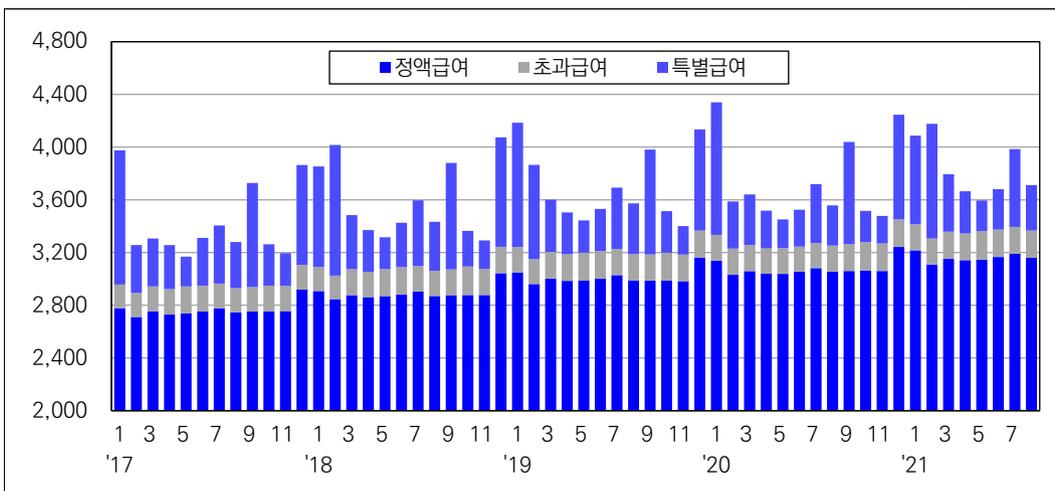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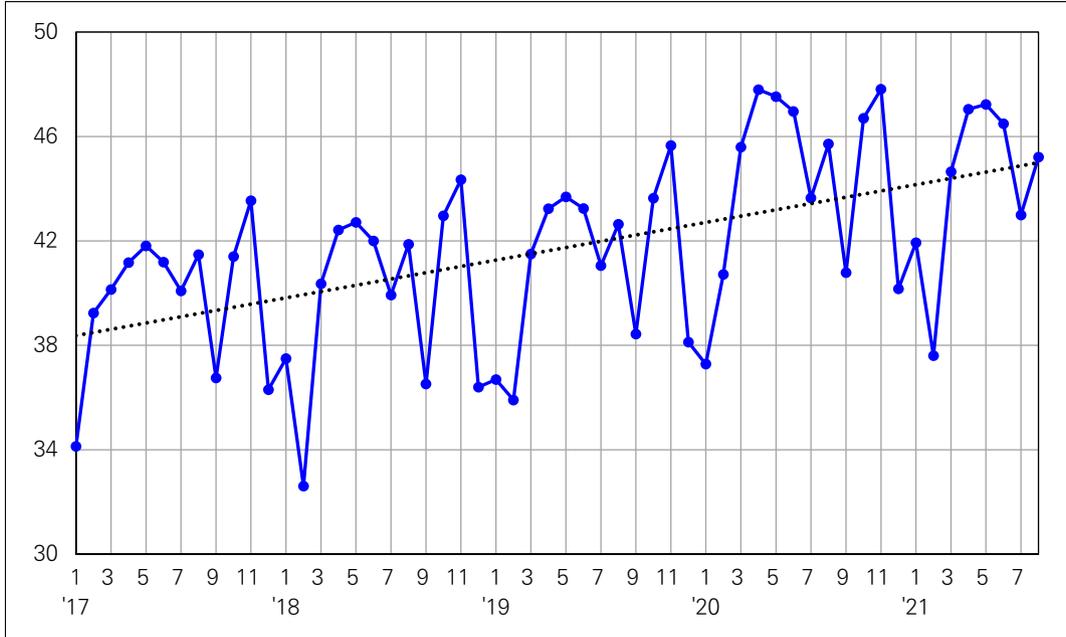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8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확대

- 2021년 8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7%, 5.5%임.
 -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5.6% 증가하였음.
 - －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6%, 10.2% 증가하였고, 특히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 코로나19 등으로 전년동월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당월 임금상승률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대규모 사업체는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 1~8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6.2%)은 전년도 성과급이 축소되었던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 성과급이 확대되고, 자동차관련 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에서 임금협상타결금이 지급된 영향임. 동 기간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3.7%)은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8월	8월	1~8월	8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 (4.6)	3,139 (4.0)	3,193 (1.7)	3,153 (1.4)	3,082 (0.6)	3,270 (3.7)	3,197 (3.7)
	상용임금총액	3,217(11.5)	3,338 (3.7)	3,377 (1.2)	3,329 (0.7)	3,255 (0.0)	3,457 (3.8)	3,381 (3.9)
	정액급여	2,723 (4.7)	2,841 (4.3)	2,915 (2.6)	2,902 (2.5)	2,902 (2.7)	2,995 (3.2)	2,998 (3.3)
	초과급여	172 (4.8)	175 (2.0)	171 (-2.4)	166 (-4.5)	168 (-2.2)	173 (4.1)	174 (3.4)
	특별급여	322 (1.9)	322(-0.2)	292 (-9.4)	260 (-13.3)	185(-28.0)	289(10.9)	209(13.0)
	비상용임금총액	1,422 (5.3)	1,505 (5.8)	1,615 (7.3)	1,601 (7.3)	1,612 (7.3)	1,661 (3.8)	1,653 (2.6)
대규모	소 계	5,305 (6.5)	5,356 (1.0)	5,242 (-2.1)	5,194 (-2.9)	4,901 (-2.7)	5,513 (6.2)	5,169 (5.5)
	상용임금총액	5,474 (6.4)	5,492 (0.3)	5,335 (-2.8)	5,282 (-3.8)	4,984 (-3.0)	5,612 (6.3)	5,265 (5.6)
	정액급여	3,735 (3.8)	3,843 (2.9)	3,847 (0.1)	3,825 (-0.2)	3,781 (-0.3)	3,939 (3.0)	3,919 (3.6)
	초과급여	324 (0.0)	335 (3.5)	340 (1.4)	334 (-0.1)	341 (2.4)	352 (5.4)	360 (5.5)
	특별급여	1,415(15.7)	1,313(-7.2)	1,149(-12.5)	1,123(-15.3)	862(-15.0)	1,322(17.8)	987(14.4)
	비상용임금총액	1,509 (7.8)	1,712(13.4)	2,029 (18.5)	2,004 (21.3)	1,920 (-0.3)	2,188 (9.2)	2,116(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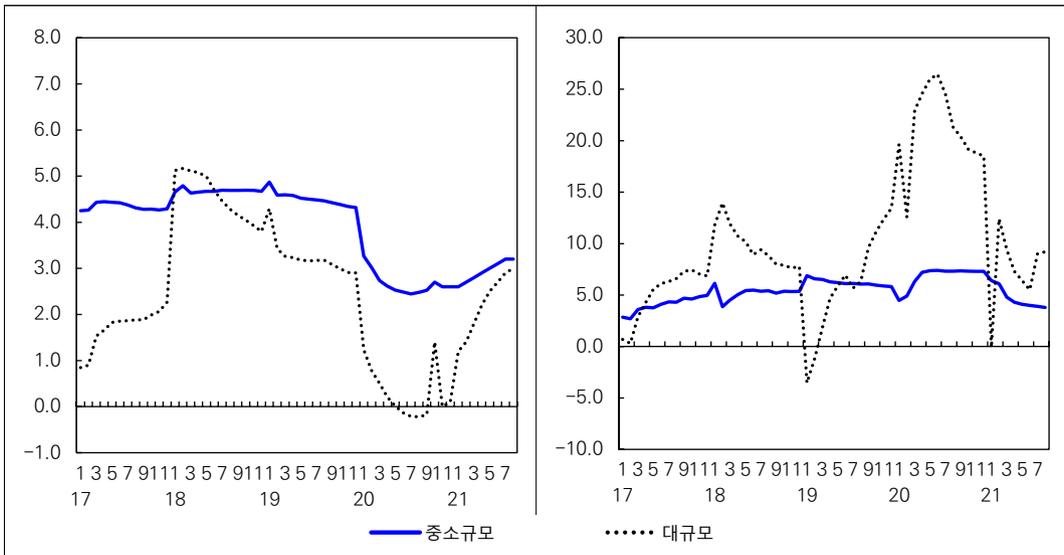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교육서비스업(-0.5%)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8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20만 6천 원)이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28만 6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10만 6천 원) 순으로 나타남.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5%)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은 평균상승률을 크게 상회한 7%대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0.1%)과 금융 및 보험업(1.3%)도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임.
- 2021년 8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7만 9천 원)이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3만 원),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67만 5천 원) 순으로 평균임금(352만 1천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8월	8월	1~8월	8월
전 산업	3,376 (5.3)	3,490 (3.4)	3,527	3,485	3,379	3,639 (4.4)	3,521 (4.2)
광업	3,835 (3.3)	3,977 (3.7)	4,325	4,297	3,988	4,395 (2.3)	4,213 (5.6)
제조업	3,930 (6.5)	4,017 (2.2)	3,990	3,918	3,769	4,159 (6.1)	3,949 (4.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6,733	6,260	5,109	6,331 (1.1)	5,286 (3.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888	3,748	3,690	3,929 (4.8)	3,816 (3.4)
건설업	2,784 (6.1)	2,951 (6.0)	3,032	3,020	2,937	3,069 (1.6)	3,045 (3.7)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423	3,377	3,287	3,506 (3.8)	3,441 (4.7)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30	3,489	3,438	3,695 (5.9)	3,578 (4.1)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879	1,875	1,878	1,882 (0.4)	1,879 (0.1)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613	4,611	4,316	4,800 (4.1)	4,481 (3.8)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6,526	6,472	6,125	6,951 (7.4)	6,206 (1.3)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848	2,840	2,737	2,922 (2.9)	2,809 (2.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4,871	4,799	4,753	5,020 (4.6)	5,106 (7.4)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411	2,381	2,345	2,461 (3.4)	2,430 (3.6)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366	3,399	3,237	3,379(-0.6)	3,221(-0.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42	2,914	2,863	2,975 (2.1)	2,941 (2.7)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73	2,848	2,719	2,958 (3.9)	2,923 (7.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63	2,526	2,518	2,672 (5.8)	2,675 (6.2)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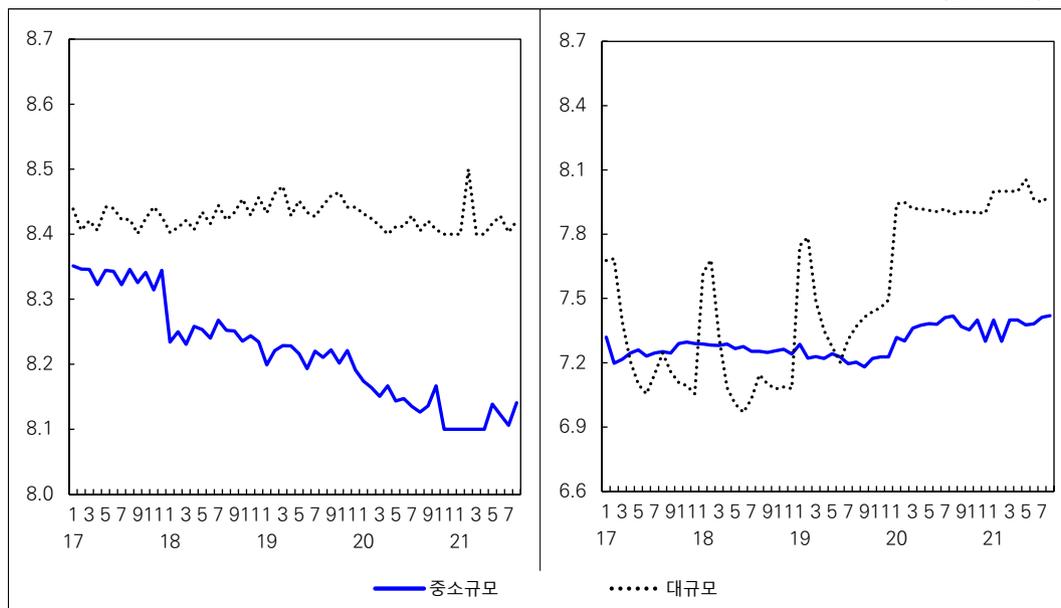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3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

- 2021년 8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3시간 증가함.
 -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7시간 증가함.
- 2021년 8월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9.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2시간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전년동월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임.
- 중소기업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3시간 증가,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8시간으로 5.5시간 증가함.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132.7시간, 7.3%)은 중소기업 사업체 비상용근로자(98.0시간, 1.7%)보다 크게 증가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8월	8월	1~8월	8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60.1(-2.0)	153.8(-4.9)	160.3(0.1)	159.1(3.4)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7.4(-2.4)	160.6(-5.4)	167.7(0.2)	166.3(3.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59.8(-2.0)	152.9(-5.3)	160.0(0.1)	158.7(3.8)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6(-11.6)	7.7(-9.4)	7.7(1.3)	7.6(-1.3)
	비상용 근로시간	99.2(-6.1)	95.4(-3.8)	96.1(0.7)	95.7(-0.1)	96.4(-0.3)	97.2(1.6)	98.0(1.7)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62.8(-0.8)	162.9(-1.1)	154.3(-4.9)	163.2(0.2)	159.8(3.6)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3.9(-2.0)	155.1(-5.2)	164.2(0.2)	160.7(3.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53.0(-1.2)	153.2(-1.7)	144.1(-5.4)	153.2(0.0)	149.5(3.7)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0.8(-5.3)	11.1(-1.8)	11.0(1.9)	11.2(0.9)
	비상용 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6.3(24.2)	123.7(2.2)	129.3(2.4)	132.7(7.3)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8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4%),
 광업(-0.6%), 숙박 및 음식점업(-0.1%)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76.1시간)이며, 다음으로 광업(175.3시간), 부동산업(172.0시간)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36.0시간), 교육서비스업(138.3시간)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정보통신업(5.4%)이고,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4%)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8월	8월	1~8월	8월
전 산업	163.9 (-1.4)	163.1 (-0.5)	160.6	160.6	153.9	160.8(0.1)	159.2(3.4)
광업	176.6 (0.5)	175.7 (-0.5)	181.2	179.7	176.4	180.5(0.4)	175.3(-0.6)
제조업	177.1 (-1.5)	175.9 (-0.7)	172.7	171.6	160.3	173.7(1.2)	166.5(3.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 (-1.7)	160.4 (-1.0)	163.7	163.9	162.4	162.5(-0.9)	160.1(-1.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 (0.4)	178.6 (0.4)	176.5	176.5	172.0	176.7(0.1)	176.1(2.4)
건설업	138.5 (-2.4)	136.3 (-1.6)	136.9	137.6	132.6	135.9(-1.2)	136.0(2.6)
도매 및 소매업	165.2 (-1.4)	165.5 (0.2)	163.8	163.9	158.2	164.0(0.1)	163.5(3.4)
운수 및 창고업	166.5 (-1.6)	164.3 (-1.3)	159.0	159.2	155.0	160.1(0.6)	161.0(3.9)
숙박 및 음식점업	159.7 (-0.4)	158.6 (-0.7)	149.7	150.6	150.9	147.5(-2.1)	150.7(-0.1)
정보통신업	161.6 (0.4)	163.9 (1.4)	163.8	164.3	156.9	164.6(0.2)	165.4(5.4)
금융 및 보험업	160.9 (0.2)	161.5 (0.4)	162.1	162.7	153.9	162.7(0.0)	161.1(4.7)
부동산업	178.9 (-3.2)	176.4 (-1.4)	173.2	173.2	169.1	171.8(-0.8)	172.0(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 (0.2)	161.4 (0.6)	161.7	162.7	154.0	162.2(-0.3)	160.2(4.0)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 (-1.2)	162.7 (-0.3)	161.7	161.8	156.8	162.4(0.4)	162.6(3.7)
교육서비스업	142.3 (-1.5)	142.1 (-0.1)	136.6	136.7	132.5	137.3(0.4)	138.3(4.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 (-1.2)	162.2 (-0.2)	158.6	158.5	153.1	158.1(-0.3)	158.2(3.3)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 (-1.1)	156.1 (-1.0)	149.7	151.0	150.2	152.7(1.1)	156.1(3.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 (-1.3)	159.9 (-1.3)	160.3	160.1	156.9	162.3(1.4)	162.6(3.6)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6건
 - 10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8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2021년 10월 조정성립률 38.1%
 - 10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22.2%에 비해 15.9포인트 높은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10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단위 : 건, %)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10.	16	26	8	2	6	13	3	10	0	5	3	38.1
2020. 10.	18	9	2	1	1	7	0	7	0	0	13	22.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표 2〉 2012~21년 10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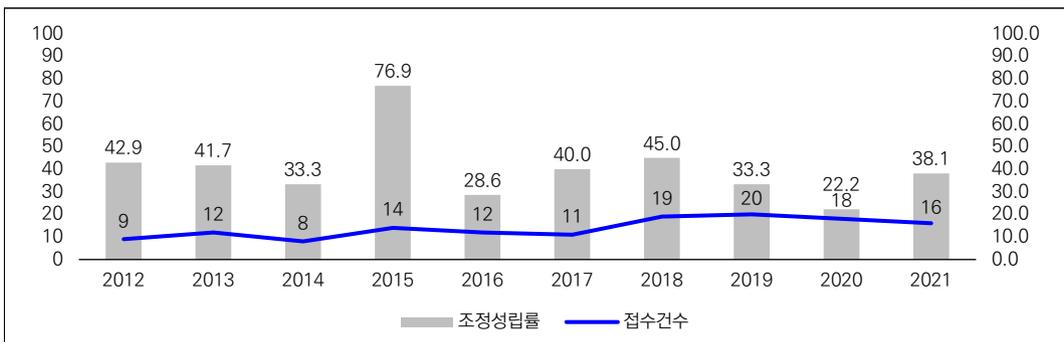
(단위 : 건, %)

	2012. 10.	2013. 10.	2014. 10.	2015. 10.	2016. 10.	2017. 10.	2018. 10.	2019. 10.	2020. 10.	2021. 10.
접수건수	9	12	8	14	12	11	19	20	18	16
조정성립률	42.9	41.7	33.3	76.9	28.6	40.0	45.0	33.3	22.2	38.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10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1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39건
 - 10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178건)보다 39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4.7%(45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5.3%(137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10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단위: 건)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10.	139	182	42	3	85	15	20	17	475
2020. 10.	178	173	26	3	75	10	37	22	62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4건
 - 10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5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9.1%(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90.9%(10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단위: 건)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10.	4	11	1	0	5	3	2	0	8
2020. 10.	5	5	3	0	2	0	0	0	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스타벅스, 업무 과중 방지 '굿즈 TF' 신설키로

- 10월 17일 스타벅스는 현재 지역별로 진행하는 상시 채용 외에도 전국 단위 채용을 늘려 매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 밝혔다.
- 이번 채용 규모는 1,600명이고 신세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2일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함.
- 지난 10월 7일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인력난을 호소하며 사상 첫 트럭시위에 나서자 본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임.
- 매장 관리자 및 바리스타의 임금체제도 개선함. 바리스타의 근속과 업무역량 등을 고려한 시급 차등, 매장 관리자 임금 인상,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임.
- 계절별 이벤트나 신제품 론칭 등을 할 때 시간대 및 매장 규모에 따른 방문 고객 수·매출 예상 등이 정확하지 못해 매장 파트너들의 혼선과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TF도 운영하기로 했음.
- 이 외에도 파트너 대표 기구인 '파트너행복협의회'의 위상도 강화하기로 했음. 현행 60명 인 지역별 대표 파트너 규모를 늘려 전국 매장 파트너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고, 개선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확대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매장 내 사무 업무 및 파트너들의 휴게공간 역할을 하는 백룸 리뉴얼 작업을 위해 10월 중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모든 매장의 휴게공간 교체를 마무리할 계획임.

◆ 끼임사 61%, 청소·점검·수리 중 발생

- 10월 27일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제조업 끼임 사망 사고 374건을 분석한 결과, 생산 등 일상적인 작업을 할 때 발생한 사고는 145건(38.8%)에 그치고, 나머지 229건(61.2%)은 청소, 점검, 정비, 수리 등 비일상적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로 보면, 청소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점검이 45건(19.7%), 조정이 30건(13.1%)이었음.
- 전체 제조업 끼임 사망 사고 가운데 크레인, 컨베이어, 지게차 등 10대 위험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건(44.1%)에 그쳤음. 나머지 209건(55.9%)은 10대 위험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에서 발생했음.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20년 작성한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가동 중인 기계

장치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채 정비 △기계 내부에 들어가 점검·수리 중 외부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 △작업 중 갑자기 정지한 기계를 전원 차단 없이 점검·수리 중 정지 원인이 해결되면서 기계가 재가동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해당 설비를 조작 등 네 가지로 이뤄져 있었음.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청소 등 작업을 할 때 기계가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하고 담당자를 뒤 열쇠를 따로 보관하게 하는 등의 '로토'(LOTO·Lockout, Tagout) 시스템을 준수하도록 기업에 제안하고 있지만, 이 제안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 3분기에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2명 사망

- 10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업체·발주청·지방자치단체 명단을 공개했음.
-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8곳이었음. 한양의 경우 3개 현장에서 3명이 사망했음.
-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업체는 성원엔지니어링·덕준건설·부강티엔씨·서원토건·우령건설·규람타워렌탈·삼표이앤씨·신건설·중원전력 9곳이었음.

〈표 5〉 3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연번	시공사		시평 순위	합계 (명)	사망자 (명)	사고일	공사명
	원도급	하도급					
1	한양	(주)성원엔지니어링	38	3	1	7.4	솔라시도 G1골프장 부대시설 신축공사
		-			1	8.5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덕준건설(주)			1	8.7	천안 풍세 공동주택 신축공사
2	현대건설(주)	부강티엔씨	2	2	1	8.5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3단지 신축공사
		-			1	8.5	금정역 보령제약부지 복합개발사업
3	계룡건설산업	서원토건	18	2	1	8.6	한국은행 증축공사
		우령건설(주)			1	9.14	시흥 은계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4	포스코건설	규람타워렌탈	4	1	1	8.9	인천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5	현대엔지니어링	삼표이앤씨(주)	6	1	1	8.26	오산역 지산물류 복합시설 신축사업
6	금강주택	(주)신건설	36	1	1	7.22	양주 화천 금강펜테리움(A-22BL)
7	서한	중원전력(주)	48	1	1	8.7	고양 삼송 A23BL(임대) 민감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8	대보건설	-	49	1	1	9.17	화성병점 A-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자료 : 국토교통부.

- 3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시주택공사(LH)로 4명이 숨졌음.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 각각 1명씩 사망했음. 인·허가 기관별로는 경기도에서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이어 서울 5명, 부산·인천 3명 순이었음.
-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12월까지 특별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품질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임.

◆ 지붕 공사 중 추락사, 올해만 38명

- 11월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까지 지붕공사 중 추락해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총 38명이었음.
- 이 중 12명이 채광창,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추락했음.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이 같은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는 91명에 달함. 장소별로는 공장 지붕 36명, 건축 공사 21명, 축사 지붕 20명 순으로 많았음. 시기별로는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주로 발생했음.
- 고용노동부는 채광창 안전 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11월에 개정한다고 하였음.
- 기존 규칙은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의 작업으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음.
-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와 '지붕 가장자리의 안전 난간' 설치를 추가하기로 했음. 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넣기로 했음.
- 고용노동부는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새로 발간하고, 50인 미만 건설업체에 안전 덮개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음.

◆ 외국인 근로자, 10년 체류하며 근로 가능

- 10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입국 후 근무 기간의 제한을 받음. 한 번 입국한 뒤 최장 근무 가능 기간은 4년 10개월임.

- 지금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출국한 뒤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음. 그동안 중소기업 등에서 “업무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며 재입국 기간의 단축을 요구했음.
- 개정 법률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가능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함.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에 1개월의 공백 기간을 거치면 같은 직장에서 최장 9년 8개월을 근무할 수 있는 셈임.
-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조건도 완화함. 지금까지는 국내 근무 기간에 회사를 바꾼(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으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음. 앞으로는 같은 업종에서 4년 10개월을 계속 근무했다면 재입국을 허용함.
- 단, 100인 미만 제조업과 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으로 한정함.

◆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요청 금지…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 10월 1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을 요청하는 일이 금지됨.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음.
- 개정안에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은 경비원 업무에 포함됨.
-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
-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 위반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2022년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

- 10월 26일 서울시는 발주 공사 계약 규정을 개정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가 합의

- 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음.
-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됨.
 - 서울시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했음. 선지급금 지급은 건설업자가 공사가 진행된 만큼 중간에 계산해 지급하는 기성금을 먼저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나중에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임.
 - 서울시는 아울러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 발주자가 하청업체에도 선급금을 지불하는 기능이 추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확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현재는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됨.

◆ 중소기업 절반 이상 '52시간 사각지대'

- 10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29일부터 3일 동안 5~299인 중소기업 414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1%가 '주 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음.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어렵다는 응답은 제조업 쪽이 64.8%로 비제조업(35.9%)보다 높았음.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52.2%(복수 응답)가 '구인난'을 꼽았고, 51.3%는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 50.9%는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들었음.
-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곳 중 '당초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라고 밝힌 35.0%를 제외한 기업들은 '탄력근로와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30.7%), '추가인력 채용'(18.6%),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17.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16.8%)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중소기업들이 꼽은 '주 52시간 근무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은 35.0%가 '특별연장근로기간(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 연장) 확대 및 사후 인가 절차 완화'였고, 32.4%는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과 '탄력근로제 사전 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 31.4%는 '추가연장근로제 기한(연장 시행) 및 대상(30인 미만을 50인 미만으로) 확대'였음.

◆ 플랫폼 노동자 61%, 부업 아닌 전업

-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61.1%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평균 18개월로, 대리운전(28.5개월)이 가장 길었음.
-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20, 30대 '청년층'의 비율은 44.3%를 차지해 다른 일자리의 청년 취업자(33.8%)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음. 29세 이하 종사자도 전체의 19.3%에 이르렀음.
- 플랫폼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로는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70.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음.
- 일자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아이돌봄(3.7점)이 가장 높았고 음식배달(2.1점)이 가장 낮았음. 플랫폼 종사자의 85.2%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음.
-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감 배정 등의 정보제공'(56.7%·이하 중복응답)과 '수수료 등 계약 내용의 정확한 이해'(55.0%)를 꼽았음.
- 필요한 사회안전망으로는 '4대 보험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고, '퇴직 공제금 지원'이 44.7%로 뒤를 이었음.
- '2021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는 고용부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6월에 대리운전·음식배달·아이돌봄·가사청소 등 5개 직종의 종사자 7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